

도내 기업 연구역량 강화 50억 지원

도, 테크노파크와 혁신성장 R&D+ 본격 추진 중소기업 대상 최대 3억원 규모 순도비로 지원

전북도가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순도비 50억 원을 지원하는 혁신성장 R&D+(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 혁신성장 R&D+ 사업은 도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담 기관으로 기업지원 등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주요지원분야는 미래수송기계 등 혁신성장산업 6개분야와 스마트 농생명

벨리 20 등 전북형 뉴딜사업 7개 분야, 3대 핵심사업(바이오엘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 40여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유형은 3가지로 자유공모형과 구매조건부, 2년에 걸쳐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연동형이 있으며, 과제당 지원금액은 자유공모형은 최대 1억원, 구매조건부는 최대 1억 5,000만원, 연동형의 경우 2년간 최대 3억 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총 408억 원을 투입해 490건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사업화 매출액 1,408억원 고용

창출은 1,124명의 성과를 달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고 있다.

사업의 신청 자격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부서를 설치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내 소재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 대학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하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기존의 연구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인건비의 현금계상 금액을 신규채용에 우선 계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50%까지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계상을 허용했고, 도내 기업의 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원대상 기업의 매출액 및 고용근로자 상여 제한을 삭제하는 등 사업 참여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8일 16시까지 전북도 R&D 종합정보시스템(<http://md.jtp.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jtp.or.kr>) 사업안내 게시판 또는 전북도 R&D 종합정보시스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전북도 혁신성장R&D+사업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의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소상공인 정책분야 전문가

신재경 신임 전북중기청장 취임 첫 행보로 백년가게 선정 업체 찾아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은 15일 제19대 신재경 신임 전북중기청장이 취임했다.

신재경 신임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청장은 첫 현장 행보로 백년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최대희 기자

신 업무를 거쳐, 최근에는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인장을 맡는 등 소상공인 정책분야에서 중기부 내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신재경 신임 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 청장은 첫 현장 행보로 백년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최대희 기자

내달 18일까지 콩·팥 종자 보급중 신청 접수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박희수)은 올해 보급하는 콩·팥 종자에 대해 오는 3월 18일까지 전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를 통해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선종콩 137.5톤, 풍산·물콩 8.5톤, 아라리팥 5.2톤 등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보급중 신청 시 콩 종자는 소독과 미소독을 구분하고, 팥 종자는 미소독으로만 신청접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신청할 종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지원은 보급중 검사에 드론을 활용, 도복 및 병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우량한 종자 생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보급중 신청·공급 관련 문의 사항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63-530-36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두류 재배 시 유의사항 및 품종 특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실용적이고 현실성 있는 멘토링 통한 나눔 선순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청년인턴 멘토링 데이'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지역 사회 청년인턴의 실용적 직무체험을 위해 15일 '청년인턴 멘토링 데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직무인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거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1:1맞춤으로 매칭된 멘토-멘티는 취업성공에 대한 자심감을 심어주고 적성에 맞는 진로찾기, 취업 노하우 등의 멘토링을 진행했다.

7주간의 직무인턴 기간을 마친 청년인턴들의 직무체험 소감 발표 시간 등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센터장은 "청년인턴 멘토링 데이를 통해 잠재력을 가진 지역사회의 청년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성 있는 멘토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나눔의 선순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젖소 영양대사성 질병, 미리 알 수 있다

분만일 실시 혈액검사로 개체 분류 방법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젖소 분만일에 실시한 혈액검사로 '케토시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개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케토시스는 젖나기(비유) 초기 젖소에서 혈액 내 케톤체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영양대사성 질병이다. 지방산이 간에서 대사생기며, 일정한 농도의 케톤체는 뇌와 근육 등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발생하면 케토시스를 유발한다. 젖소가 이 병에 걸리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체중과 유우 생산량이 감소하고, 번식 장애를 겪거나 자궁염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젖소 분만일에 혈액 검사를 실시해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케토시스 발병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평균 적혈구 용적(MCV), 단핵구 수, 비에스테르화지방산(NEFA),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등이 있으며, 연구진은 각 지표의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일 때 케토시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13개 지표는 주로 간 및 대사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케토시스에 걸린 젖소는 발병 전인 분만일에 이미 관련 기능이 저하됐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 논문은 국제학술

지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1월호에 게재됐으며,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김성민 수의사(충청북도 충주시)는 "케토시스 발병 위험이 높은 개체를 따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사후치료 중심으로 관리되던 케토시스의 예방관리가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나농과장은 "최근 개발한 케토시스 치료법과 케토시스 예측 지표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관련 지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사과·배·단감·뽕은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농협소보 전북총국, 판매 개시

NH농협소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김현미)은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뿐 아니라 동상해(추위나 서리로 인한 눈꽃 피해), 일소(햇볕 데임)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가입 농가는 필요에 따라 보장받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보험료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책보험인만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35~60%를 지원하고, 여기에 지자체에서 30~4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 농가는 시군에 따라 0~32%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사과·배를 대상으로 기본요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했다. 지역별로 재해 위험 수준이 다른 점을 보험료에 더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부 시·군 지역에 대해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변경했다. /김윤상 기자

또한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뽕은감 품목의 낙엽율에 따른 인정피해율을 개선했고, 거대 재해 발생으로 인한 평년차과량의 급격한 감소 및 증가 방지를 위해 3년 이상 가입이력인 과수원에 대해서는 평년차과량에 상하한(30%~300%)을 두어 과거작과량 이력을 보정했다.

지난해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과수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전북에서는 과수4종, 2,053 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해 135억 원을 포함,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92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 품목으로,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과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되고 있으며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현미 총국장은 "태풍과 이상기온 등 찾아진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노년에 일하는 우리가 멋지다' ... 카페우정 경원점 개소

바리스타 4명 등 활동 활발 전북우정청, 효자시니어클럽과 지속 협력체제 구축해와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임정규)은 전주효자시니어클럽(관장 박호순)과 함께 15일 카페우정 경원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전주경원동우체국 내 유휴공간에 설치된 카페우정 경원점은 전주우체국 내 위치한 카페우정 전주점에 이어 두 번째로 우체국에 설치하는 시니어 카페다. 그동안 전북지방우정청과 전주효자시니어클럽은 지역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번에 문을 연 경원점에는 4명의 어르신 바리스타와 6명의 수제형 제조 전문가가 '노년에 일하는 우리가 멋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전주효자시니어클럽(관장 박호순)과 함께 15일 카페우정 경원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으로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미중용 역할을 하고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앞으로도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과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호순 관장은 "카페 공간을 편안하고 아늑한 컴퓨터 조성하여 우체국이



전북농협은 농협고창군지부에서 고창농협에 상호금융 대출금 3천억 원 달성탑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호금융 대출금 3000억원 달성

고창농협, 달성탑 전달받아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고창군지부에서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에 상호금융 대출금 3천억 원 달성탑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 대출금 달성탑 시상식은 지역농축협의 건전경영과 내실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상호금융의 이번 달성탑 수상은 코로나19와 대내외 어려운 금융 여건 속에서도 유덕근 조합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정재호 본부장은 "고창농협의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금융환경 속에서도 내실 있는 경영관리를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 민중하고 조합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덕근 조합장은 "상호금융 대출금 3천억 원 달성은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성원과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며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합원 및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성기자·고창=김영식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